

신기술 신상품

박 대 희

(원광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세계전력기술의 E7회담

지난 6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 6회 세계전력기술회의(E7)가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세계의 전기사업자(6개국, 8사업자)가 전기사업에 관한 글로벌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기사업에 관한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것으로 1992년부터 개최되어지고 있다.

금번의 회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 변혁기에 있어서 전력사업"을 테마로서 개최되어졌다.

이 테마는 1992년 브라질에서 지구환경 회의 5주년 즈음하여, 6월의 유엔의 지구환경특별총회나 12월의 교토에 있어서 기후변동 조약국제회의등, 지구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회의에 관련되어, 전력분야에 있어서도 E7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위하여 테마로서 금번에 온타리오 하이드로에서 주최하여 제창되어진 것이다.

금번의 회의에 앞서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한 지속적으로 가능한 에너지개발을 E7에 참여한 회사를 포함한 세계의 전기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가 지난 3월 17일과 18일 양일간 E7과 브라질전력공사의 공동개최로 브라질에서 개최되어졌다.

보고회에서는 14개국에서 16의 전기사업자가 참가하고, 원자력, 수력, 화력, 신에너지등에 관한 여러분야에 있어서 사례가 보고되어졌다.

금번 E7의 세계전력사업자 회의에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한 전기사업의 경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참여국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의 향상에도 큰 공헌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7 각사는 제각기의 지역에 있어서 보다 경쟁적인 시장에서 큰 사업기회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더욱이 E7설립의 목적의 하나로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실은효과를 일으키는 가스소멸을 위한 과제를 공동 추진하고, 현재 미니수력발전, 태양광발전, 화력발전소의 효율개선등에 의한 실은효과 가스소멸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원자력발전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의 재평가, 원자력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의 중요성, 원자력에서 사회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해활동추진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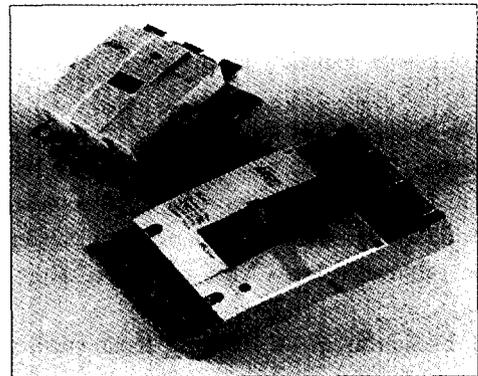
다음의 회의는 내년 6월에 프랑스의 EDF에서 주최로 베르사유에서 개최되어질 예정이다. E7회의에 참석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 EDF, 이태리 : ENEL s.p.a, 캐나다 : Hydro

Quebec Ontario Hydro, 일본 : 관서전력과 동경전력, 독일 : RWE AG, 미국 : SCE

이와 같은 E7에 관련되는 정보 및 안내는 <http://www.e7.org>에 공개되고 있다.

LG 산전, 배선용 대용량 차단기 개발



LG산전은 순수자체 기술로 대용량 배선용 차단기 및 개폐기(Meta-MEC MCCB /ELB,사진)를 개발에 성공하고 국내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Meta-MEC시리즈는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의 차단용량별 Type를 추가시킴으로써 다양한 부하 및 사용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개폐기의 정격 사용전류는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어서 고객의 납기대응 및 부하증감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여, 순간트립전류의 조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부하의 보호도 가능하다. 특히 차단용량을 5 ~ 20%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시장Need에 부합하여 사용 가능하다. 이와같은 Meta-MEC시리즈는 배선용차단기 75기종, 누전차단기 9개 기종, 전자 개폐기 75종(전자접속기 57개 기종 및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 18개기종-전자개폐기는 전자접속기와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로 구성됨)등 총 1백 59개 기종을 갖추고 있다.

개발된 제품의 품질인증은 유럽공동체의 CE마크와 중국의 CCEE의 규격을 취득할 예정에 있으며, 향후 치열해질 국내 차단기·개폐기의 독자 모델 개발은 국내 개발에 따른 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이 되고 있다.